

대림 제2주일

기도서 P. 211 B해

제1독서(이 사 40, 1-5. 9-11)

제2독서(베드 후 3, 8-14)

복 음(마 르 1, 1-8)

# 숲 정 이

발행	천주교전주교구
편집	사 목 국
인쇄	판 리 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5098 ③ 3201

▶ 감 론



## 몽땅 바치는 삶

김 영 신 신부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한 모습으로 오셔서(성탄) 인간을 위하여 몽땅 전생을 바치시므로(구원) 하느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으며(말씀과 성체)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어(재림)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실 분(심판주)입니다.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모실 그리스도는 누구나 다 진정한 회개를 하여 죄녀 막달레나와 같이 그리스도만이 생의 전부가 되도록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 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배반했으나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마음이 괴로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진심으로 회개하여 하느님께 돌아와 자신을 송두리째 바칩니다. 그렇기에 베드로 사도는 어느 제자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유다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자멸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 몽땅 바치지 않는 회개라면 관료적인 눈물도 힘없고 가난한 이의 하소연의 눈물도 어떤 불행한 처지에 홀리는 슬픈 눈물일지라도 그 회개는 순간 뿐인 것입니다.

회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말라 하여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생을 돌리는 삶을 말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마음으로부터 죄인임을 인정할 뿐 아니라 절으로도 고백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는 광야에서 외치던 세례자 요한과 베드로 사도와 같이 회개의 열매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므로 온갖 죄악과 불의가 난무한 세상에 교만과 이기심에 사로잡힌 인간을 짊어 메워서 곧은 주의 길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성될 하느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께서 영광중에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며 재림하는 심판주께 몽땅 바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마르 1장 4절>

(창인동 천주교회 주임신부)



## 썩쓸한 이야기

—교사와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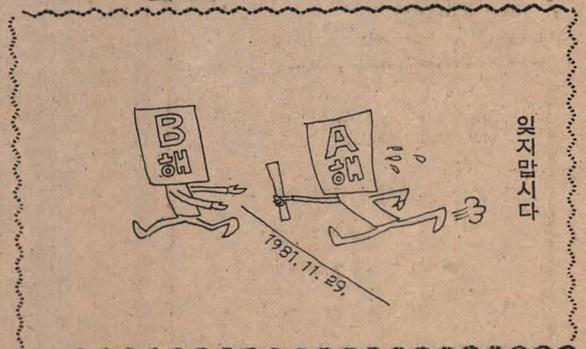
「카인은 아우 아벨을 “들로 가져”고 꺾어 들에 데리고 나가서 달려들어 아우 아벨을 쳐죽였다.」—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의 모습이다. 하느님이 아벨의 죽음을 아시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자, 카인은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잡아메며 모른다고 대답한다. 성경은 또 이에 앞서서 아담과 하와의 잘못도 그리고 있다. 그들은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기에 앞서서 핑계를 댄다. “여자가 따주어서”, “뱀에게 속아서”라고.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이다.

교사가 학생을 유괴해서 죽였다고 모두들 놀라워 하며 분개하고 있다. 분명히 놀라운 사건이다. 그는 그의 좋은 머리를 최대한으로 굴려서 시침을 베고, 핑계를 댄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올림피아 구경 못하고 죽는게 제일로 억울하다고 뻔뻔스러운 말을 서슴없이 지껄었다. 뱀처럼 간교한 지혜만 부쩍 늘어난 모습의 인간상을 보여준다. 우리(人間)의 모습이면서도 어처구니가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용서받기에는 너무나 염치없는 범죄>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들을 단지기애 앞서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슬한 새 생명들이 부모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기도 한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백성들을 죽이고 있는 양의 탈을 뒤집어쓴 지도자도 있다. 침묵을 지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동조하는 지성인들의 나약함도 역시 범죄임에는 틀림없다. 유명사업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돈벌이에 혈안된 독버섯들도 있다. 한 손에 성경을 들고 다른 손으로 남의 주머니를 뒤흔치는 뱀같은 종교인도 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대림절에 다시 살펴보자.

## 숲 정 이 산책



웃지 않습니다

□ 군중신부의 편지

군(軍) 사목—그 절박성

군에 들어오는 청년들의 보다 효율적인 신앙지도와 군중사목을 지원하기 위해 금년에 교구에서도 후원회가 결성되고 지도신부가 임명되었으며 임원진이 구성되었습니다. 참으로 반갑고 고마운 일 두루 감사드릴 뿐입니다.

헌데, 매달 봉헌기로 한 군중후원회 11월 미사에 10명도 채 안되는 회원들이 참례한 것을 보고 불원천리 했던 자신에 너무 허탈한 생각이 들어 몇 자 꾸밈을 적어 보니다.

임대한 청년들이 신앙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만은 공부하고 출세하는데는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면서도 어떤 특수한 처지에서 크리스찬 소명을 받들어 생활하는데는 진척 의식화되거나 훈련되어 있지 못한 젊은이들의 현실입니다. 이를 감안해서 후원회가 구성되었으니 더욱 힘차게 활동해야 될텐데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은 문제점 앞에서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상 더 욕심을 내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현재의 후원회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즉 각 본당이 지회장 한분씩이 선임되어 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케 하고, 매일의 열심한 기도도 또는 매월 한번씩 봉헌되는 후원회 미사를 통해서 기도해 주시며, 정해진 회비를 꼭꼭 내어 물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회비: 일반회원 매달 1천원, 특별회원 2천원).

끝으로, 본당 신부님과 회장님들—특히 전주시내 어른들께 삼가 부탁드립니다. 본당의 지회장 임명과 그 활동을 협력해 주셔서 일선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복을 전하겠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분의 동료인 군중신부들에게 용기를 갖게 해 주십시오.

한 해를 풍성히 마무리지어주시길 바라며 주님의 은총이 본당과 교우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1981. 11. 24

정 승 현 신부

사랑의 결심

—M.E 강습을 마치고—

이 세 시 리 아

손을 꼬옥 잡아주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에 세상 사랑과 행복을 느끼면서 눈을 지긋이 감고 있노라니 감격스러웠던 지난 주말의 순간들이 하나씩 머리에 떠오른다.

진실된 사랑을 받지 못해 여자로서의 아름다움도, 향긋한 기풍도 지니지 못한채 버림받고 사는 엘든자의 처절한 절규는 사라지고 감미롭고 사랑에 흠뻑젖은 덜시베아의 아름다운 노래가 들리더니 어느덧 나의 것이 되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는다.

두손을 잡고 서로 다정히 바라보면서 “즐거울때나 슬플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평생 당신을 사랑하겠읍니다.”고 새롭게 고백할 때는 쏟아지는 기쁨의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생각해 보면 13년전에 있었던 결혼식이 비하면 이번의 우리들의 약속은 더욱 진실되고 성숙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매일 매일의 생활속에서 사랑의 대화 한마디 없이, 마치 결혼한 독신자로서 살아온 우리들의 웅졸함이 나를 괴롭혔고 또한 우리들을 괴롭힌 것이었다.

배우자를 제쳐두고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으며 더 우기 어떻게 하느님과 일치하는 생활을 할수 있겠는가?

부부는 하느님께서 친히 맺어주신 작은 교회이다. 이 작은 교회에 진정한 사랑이 넘칠 때 이웃사랑도 가능하고 큰 교회에 대한 참된 봉사도 가능하다. 또 작은 교회가 평화로울 때 큰 교회가 평화롭고 세계가 평화롭게 된다.

이제 다시는 다정히 잡은 이 손을 놓지 않으리다. 그리고 매일 매일 사랑의 편지를 그이에게 띄우리다.

(전동성당)

고백성사(告白聖事)의 성격과 우리의 자세

‘무릇 죄(罪)의 아픔은 홀로 안고 괴로워함보다 고(告)해 용서받음으로 더 후련해지고 평화로워진다.’

고백성사는 하느님 사랑과 지혜의 산물, 늘 잘못을 저지르며 사는 약한 우리들을 위해 주께서 직접 마련해 주신 참으로 고마운 제도(制度)다(요한 20, 23 참조). 그러기에 우리는 이 일을 신비로운 것(秘蹟, Sacramentum)—하느님이 하시는 거룩하신 일(聖事)로 존중하고 있는 것이다.

고백성사는 결코 개인(個人) 신부 아닌 주 그리스도께 직접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 신품(神品)성사에 의해 성무 집행권을 받고 그리스도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제(司祭)는 다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리(代理)해서 참회어린 고백을 듣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대신 사죄(容恕)와 보속(補贖: 속죄행위)을 내려주는 것 뿐이다.

따라서 어떤 체면이나 부끄럼 따위로 성사에 임하기를 꺼려하거나 또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는 한 인간 아닌 주님, 바로 사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자신을 아뢰는 것이니까. 사실 고백소의 사제는 그 때문에 신명을 다해 고해(告解) 비밀엄수를 다짐하고 또한 인간적 편견을 없애려 나름대로 고투(苦鬪)까지 한다. 신부(神父)도 고백성사를 보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주님 뜻을 채비에 바쁜 판공(判工)사가, 모두 부담없이 고백소에 나아가 절려하게 솔직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자! 우리의 은밀한 곳까지 꿰뚫어보고 계시는 주님께 보다 진실된 뉘우침과 개심(改心)을 굳게 하면서...(熙)

성심 치과 의원

군산시 중앙로 1가 96

(만수병원 옆)

☎ 6917 · 1294

원장 강기현 (원선시오)

□ 금·은·보석·시계는 남문열 교우집을 찾아주세요

금 보 장

(전·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전주 남문열(대지여관 입구)

전화 ④9489(사구팔구) ④4988

□ 축! 개업

숲정이 슈퍼마켓

전주시 진북동 1159-5

전화주문 배달함(숲정이성당 앞)

전화 ③ 3550

김원겸(시길로)·박효승

ECCLESIA

□ “항상 깨어 있어야 살 수 있다”

—진안 농민회 토지등급 재조정—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진안천주교회 농민회(지도신부 김윤섭)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보아낼질 문제들을 모임을 통해 확인하고 시정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농협 민주화활동, 불량비닐 보상문제의 해결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다져온 이들은 논 의 토지등급이 실제 거래되는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어 그동안 양도소득세, 상속세 재산세 등을 부당하게 물어 왔음을 진안군 당국에 시정을 요구하여 3개마을(명촌, 어은동, 소토실) 226필지의 토지등급을 최저 3등급, 최고 9등급까지 인하하는 활동을 했다. 살기 힘든 세상에 나 혼자만 아닌 전체가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진안 농민회의 활동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다.

이웃과 함께 살아가자는 이념아래 활동하는 진안본당 농민회의 전도 축복을 빌어마지 않는다.

□ J.O.C 호남지역 지도신부 모임

지난 11월 23일 지·오·세 호남지역 지도신부 모임이 전주교구에서 개최되었다. 전주, 광주, 대전 세 교구의 J.O.C(가톨릭 노동청년회) 지도신부와 그의 노동문제에 관심있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참석하여 노동청년회 당면 문제들을 함께 나누고 앞으로의 방향을 토의하였다.

이날 모임의 주요내용은 두봉주교님의 강의에 이어 회원들의 공장 활동 사례 발표 및 교구상황 등을 교류하고 지금까지 지·오·세 발전에 장애되는 요소들을 지적, 분석하여 지도신부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토론이 진행되었다.

처음으로 갖은 모임이었지만 회의 분위기는 사뭇 진지하였고 이 운동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동 「한솔 야학교」 학예 발표회

가진것을 나누려는 마음과 모자람을 채우려는 열정이 만나, 향학의 등불을 가까이 해 온지 12월 1일자로 한 해가 되었다.

「한솔 야학교」(교장 김병업신부)가 개교 1주년 기념으로 12월 6일 전동본당 소강당에서 작품전시 및 학예발표회를 갖는다. 학생수 99명(중 50명, 고 49명)이 43명의 선생님과 지도를 받아 틈틈이 익힌 수예, 스킨자수, 시화, 전시를 오전부터 열고, 오후 5시에는 3시간여에 걸쳐 합창, 연극, 율동, 중창, 시 낭송 등의 학예발표회를 한다.

전동본당 사도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대진신협’의 정기적인 도움을 받으며 운영하는 한솔 야학교의 잔치에 방문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찬사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자.

◇ 신간소개 ◇

군 중 신 부(유니버살 문고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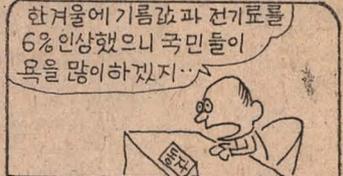
교구출신 군중신부인 정 승현 신부가 군사목 현장에서 보고 느낀 바를 기록한 60여편의 글이 실려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성바오로 출판사 발행, 값 1,500원)

♣ 가톨릭 센타 전화번호 변경 안내

12월 5일부터 센타 및 여학생관의 전화번호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가톨릭 센타 : ⑤ 0041 · 0042 여학생관 : ⑤ 0043

요심이 (436) 김병오



수입 완제품 칼라 T.V 보  
안기 및 생활 필수 수입품  
판매원 모집  
(제 1기)

1. 인원 : 각본당별로 교우 2명 (아르바이트 남·녀 대학생도 가능)
  2. 선발 : 자필 이력서 1통을 12월 10일까지 보내 주시면 개별 연락하겟음 (10일자 소인 유효)
  3. 제출처 : 전주시 효자동 우진 아파트 307호 (전화 ⑥6338) 정 성 규 (베드로) 이리시 평화동 145번지 (전화 ⑥ 2921) 정 병 식 동성 수출입 상사 전북 영업소
- ※ 교우구입 문의접수

수정같이 맑고 보석처럼 빛나는 파카 크리스탈

20~50% 특별 할인 판매

내년 특별소비세 실시에 따른 가격 인상에 앞서 11월 25일~12월25일 까지 그 동안의 성원에 대한 사은판매를 실시하오니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전주시 중앙동 고려여관 맞은편 전 화 ⑥ 2838번

일 중 양 행  
강 경 일 (아오스딩)

三星物産 전주특약점

위크엔드 Weekend 버킹검 Buckingham  
맥그리거 MCGREGOR 주니어 아동복 (남 여)

전주시 중앙동 3가 96 삼화약국 옆 전화 ⑥ 4451 유 율 리 안 나

제 4 지구 각 분당 소식



1. 성모의 원죄없으신 잉태 대축일(교중미사) : 12월 8일
2. 전주지역 울뜨레야 : 일시-12월 14일(월) 오후 7시30분 ※ 매월 둘째 월요일은 울뜨레야의 날 장소-가톨릭센터 3층
3. 군중후원회 윌레미사 : 12월 7일(월) 오후 6시, 장소-센타 회의실 대상-군중후원회원, 주례-교구 군중신부 전체
3. 문학강좌 : 일시-12월 12일(토) 오후 7시30분 장소-가톨릭 센터 3층 강당 강사-김 현(평론가·서울대 교수) 주례-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중앙)

전화 ③3651번 3874번

주임 신부 문정현  
보좌 신부 박종환  
사도 회장 김병호

※ 성경읽기 : 이사야 35장~48장까지, 마태 11장~17장

1. 사도회 :
2. 성탄 영세자 종합교리 : 9·10·11일 오전 10시30분, 오후 7시, 19일 7시30분 영세 철차 안내
3. 자모회 윌레회 : 12일(토) 오전 10시 회합실
4. 가을판공 안내 : 8일(화) - 병자방문 성사드림, 11일(금) - 공소(간중리·용흥리 오후 2시30분) 간중리공소에서, 12일(토) - 주일학교 어린이 오후 2시30분, 15일(화) - 전부·인후·금암, 16일-경원·중노·기타, 17일(목) - 중·고·대학, 18일(금) - 서노1·2, 태평1~2, 고사, 19일(토) - 성·교, 기타 ※성사시간 오후 3시~6시, 7시~10시 성사포 발행-8일부터
5. 어머니합창단 윌레회 : 10일(목) - 오전 10시30분
6. 청년성가대 회원모집 : 매일 저녁 7~8시30분, 성가대 방
7. 성모유치원생 모집 : 원서교부 및 접수 12월 15일 하루
8. 82년도 신임 사도회 상임위원 : 회장-박광문, 부회장-김정성, 재경부장-김인철, 전례부장-임주백, 선교부장-김영준, 봉사부장-박영근, 감사-오중원·황의우

□ 지난주 봉헌금 : 469,550원

(노총동)

전화 ②7032번

주임 신부 김정원  
사도 회장 이홍재

1. 제 2 차 전국 봉사자 세미나 : 16일(수)~18일(금)까지 (2박3일) 자세한 내용은 성령채신지 50호 참조
2. 베소라성서 강의 : 8일(화) 저녁 7시, 주제-최후의 만찬 ②
3. 자모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4. 금주의 성경읽기 : 구약의 마카베오 상편 전체
5. 형제회 윌레회 : 오늘 공식미사 후
6. 교무금을 완납합시다 : 교무금을 못내신분이 많음
7. 성령 기도회 : 매주(금) 오후 2시~4시까지 직장인들은 매주(금) 오후 7시부터
8. 애령회 임원개편 : 회장-전길남, 부회장-김명수·김철문, 총무-이흥영

□ 지난주 봉헌금 : 260,881원

(덕진)

전화 ③2182번

주임 신부 서석기  
보좌 신부 유영도  
사도 회장 양상열

- ※ 견진을 축하합니다 : 90명 견진
1. 사도회 정기총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예산심의, 각공소회장님 구역장판장님 자단체장님 사도회임원
  2. 공소 판공 및 분당 판공 성사일  
공소 : 전당리-7~8일, 미산리-9~10일, 내동리-10~11일, 동산촌-11일, 분당 : 금암동·송천동-14~15일, 팔복동·덕진동-16~17일, 기타학생-19일
  3. 다음주 반석회 모임 : 13일 1층 회의실
  4. 영세자 특별교리 : 14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5. 금년을 보내기전에 1세대에 1명씩 예비자 꼭 인도 합시다 교리는 주일 공식미사후, 수요일 저녁 7시
  6. 회의실 서랍 기증 : 임병순 로사리아 자매님
  7. 성가대에서 기금모금으로 영건미역 판매 : 한 상자당 3,500원

□ 지난주 봉헌금 : 616,19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김희남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임 사도회 임원선출 : 회장-조성호, 부회장-양규철·안경배(분과별로 차주발표)
2. 성우회 정기총회 : 13일(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조성호·이기배 형제 유사

3. 복자 부녀회 윌레회 : 7일(월) 어머니미사 후
4. 판공성사는 7일까지 받으세요
5. 다음주 전례담당 : 해설-최정순, 독서-①양규철 ②박상기

□ 지난주 봉헌금 : 313,44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사도회 윌레회 : 공식미사 후(사무실)
2. 유아세례 : 매월 첫째 주일 공식미사전
3. 반장님 윌레회 : 다음주 공식미사후
4. 성심부녀회 : 11일 오후 2시(남부병원)
5. 공소 판공성사 : 광곡리공소-8일 오후 3시, 마음리공소-9일 오후 3시
6.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김한기 ②차상열

□ 지난주 봉헌금 : 182,005원 교무금 : 193,600원

(순정이)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수·유·②9567 사도 회장 김수립

1. 사도회 윌레회 : 6일 공식미사후 상임위원·구역장·반장·각단체장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2. 성서 40주간 모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30분, 임안젤라택
3. 성탄 성가연습 : 7일부터 매일 저녁 7시30분
4. 사도회 분과위원 소개 : 다음주 발표
5. 차주 전례담당 : 해설-이기호, 독서-①이원일 ②김중환

□ 지난주 봉헌금 : 345,260원

(전동)

신부 ⑥6208 주임 신부 김병엽  
사무원 ③3222번 보좌 신부 박병준  
수녀 ②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사도회 : 오늘 공식미사후, 사도회 총회(임원선거, 예산심의)
2. 유아세례 : 오늘 8시30분 미사후
3. 구역 지도위원 모임 : 8일 오후 7시30분
4. 주일학교 : 주일학교 주회 음번대회 연기 13일
5. 추계 가정방문 : 8~11일, 중앙동·다가동·남노총동·경원동
6. 사도회 사무실 여직원 오혜경(로사마리) : 개인사정으로 사임하였음, 약 3년간 수고많으셨습니다
7. 다음주 : 자모회(공식미사후), 장우회(저녁미사후)
8. 추계 판공일자 : 13일-주일학교 아동(2시), 16일-성금년 영세한분, 17일-풍납동·남노총동(젊은이 성가대), 18일-동교·서교동, 19일-중고 셀벌 학생가대, (오후 3시), 22일-동완산동·서완산동, 23일-전동·중앙동·경원동·다가동·기타동, 24일-부득한분 ※ 판공시간 오전 10시·12시, 오후 2시~6시, 미사 전후
9. 글로리아 성가대 임원개편 : 단장-경양수, 부단장-은순상, 총무-강남수, 회계-강옥희
10. 성탄 성가연습 : 3일부터 매일 사제관 2층 7시30분

□ 지난주 봉헌금 : 475,2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채수현

1. 사도회 윌레회(제 1 차) : 오늘 밤 미사 후 ① 예산편성, ② 참가대상-사도회장단, 각분과위원장, 감사, 교문
2. 푸리아 : 다음주
3. 판공일정 : 두현리공소-9일(수), 골짜기공소-16일(수), 분당-13일(일)·20일(일)
4. 교무금 신임바랍니다 : 13일(주일부터)

□ 지난주 봉헌금 : 135,090원 교무금 : 166,500원